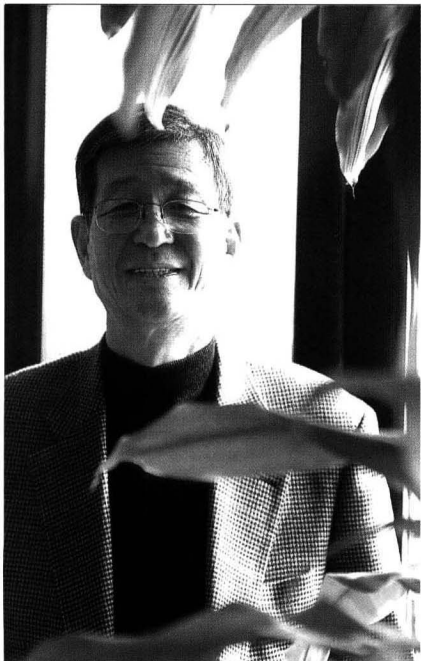


# 죽음과 종교에 대한 정진홍의 키워드, 인간 존중



정진홍 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는 학문하는 사람들의 “있지도 않은 걸 어떻게 공부하느냐?”는 물음과 “믿지 왜 알려고 하느냐?”는 종교인들의 물음 사이에서 항상 무언가를 찾고자 했다. 종교인과 일반인들의 물음 그 사이에 무언가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게 종교학이라 믿고 시작한 종교학도로서의 그의 공식적인 생활은 지난 2월 28일 정년퇴직으로 끝이 났다. 그에게는 이제 마음껏 읽고 롤랑 바르트처럼 내 맘대로 글쓰기에 전념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허락된 것이다.

요즘 그는 어머니가 입원한 병원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가 병원에서 ‘शल얼음판을 디디고 살아온 것’ 같은 지나온 세월을 반추해 보는 동안 《만남, 죽음과의 만남》과 《경험과 기억》이라는 두 권의 책이 잇달아 생명을 얻었다.

“《만남, 죽음과의 만남》은 교리적인 언어에 얽매이지 말고 죽음이란 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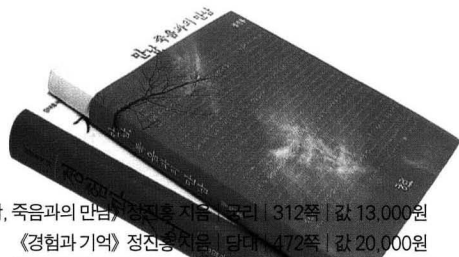
엇인가란 문제를 받았을 때 답안 쓰듯이 아무것도 보지 말고 써보자는 의도로 만든 책입니다. 짧은 인생경험이지만 그걸 밑바탕으로 죽음이라는 주제에 나를 다 쏟아보자 해서 쓴 거죠. 죽음은 어릴 때부터 저를 지속적으로 사로잡던 주제인데, ‘삶과죽음을생각하는회’ 김옥라 회장을 우연히 알게 돼 1994년 경 죽음에 대한 강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번은 김옥라 회장이 저보고 강연을 여섯 번 다 하라고 하시더군요. 이 기회에 나도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자 싶어 강연을 하게 되었고, 그 강연이 이 책의 토대가 된 것입니다.”

죽음은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이다. 글로 다듬지 않아서 그렇지 사람들마다 나름의 죽음관이 있다. 죽음에 대한 나름의 이 이해들은 때론 불안한 것일 수도 있고 오만하거나 자학적일 수 있다. 그가 이 책을 통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죽음이 존중되지 못할 때 필연적으로 삶도 존중받지 못한다. 삶을 이해하기 위해 죽음도 이해해야 한다”는 메시지이다.

그는 타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자로서 참여하려고 하는 자세와 인식이 공유되길 바란다.

## 종교, 종교문화

당대에서 낸 《경험과 기억》은 “종교라는 현상에 대한 ‘전통적인 이해’와 ‘문화’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기존의 담론들을 비집고 들어가 내 삶의 현실성으로부터 제기되는 종교문화에 대한 물음들을 살펴보고자” 했다는, 종교학자 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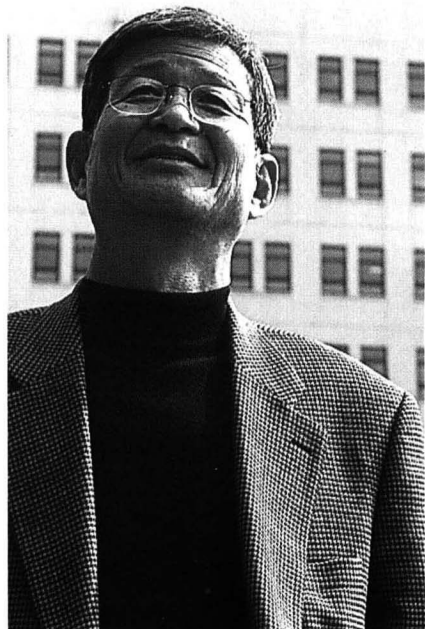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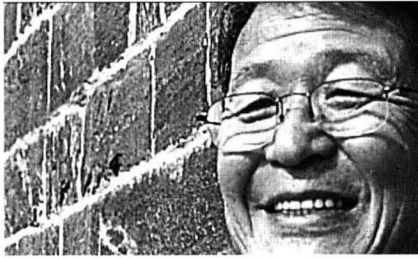
《만남, 죽음과의 만남》 정진홍 지음 | 312쪽 | 값 13,000원  
《경험과 기억》 정진홍 지음 | 472쪽 | 값 20,000원

진홍의 인간과 신을 이해하고자 한 사유의 기록이다.

“이 책을 낸 의도는, 경험과 기억이라는 말을 역사와 해석이라고 바꿔도 좋은데, 중요한 건 어떤 것으로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사건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사건은 변하지 않는데 기억 속에서 사건이 변화하는 거죠. 경험을 기억하는 기억들도 그렇죠. 종교도 한번 이런 시각에서 보자, 그럼 안 보이던 것 못 보던 것도 보이지 않을까 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가 왜 종교학을 하게 되었는지부터 이해해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종교학이 제 갈등에 상응하는 에콜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아주 소박한 갈등이었어요. 주일학교에 다녔는데 어느 날 교리를 듣다 보니 할머니가 지옥에 가 계신 거예요. 할머니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고, 제가 어릴 때 병이 들었다는데 할머니가 정한수를 떠놓고 비셨대요. 이 이야기





는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그렇지만 기독교에서는 죄짓는 이야기죠.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도요. 예수만 믿어야 되나 우리 할머니가 왜 우상숭배로 지옥에 가 있어야 하나. 그럼 결론적으로 말하면 종교란 게 뭘지 학문적으로 천착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는 자신의 물음을 좇아 종교학을 선택했고, 종교학을 하며 ‘배운’ 물음 말고 늘 자신의 물음도 묻고 싶었다. 그가 고집스럽게 ‘종교문화’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런 고민의 연장선상에 있다.

“종교하면 바로 기독교, 불교, 유교 이렇게 연상합니다. 우리는 이들을 전통종교라고 하는데, 그러나 종교문화 하면 종교를 아우르는 분위기가 다 들어오죠. 사제 옷도 떠오르고, 종교의 역사적 개념도 함축할 수 있고, 기도 하는 모습도 떠오르고... 그래서 전 종교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는 종교문화라는 말을 억지로라도 써서 기존의 종교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고정개념을 깨뜨리려 한다. 종교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을 권위에 장악당하지 않고 경험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유도하기 위해 종교문화라는 말을 고집스럽게 사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욕도 많이 먹어요. 종교면 종교지 무슨 종교문화냐고요. 학문이라는 건 결국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

제를 소통 가능하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렇다면 소통하기 위해서 새 언어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신학과 종교학

신학이나 불교학은 이미 전제된 일정한 해답을 자기 것으로 수용하고, 수용한 자신의 태도를 강화하기 위한 논리이다. 종교학은 신학이 하는 이야기를 되풀이하는 것이 아니라 신학에서 하는 이야기들을 데이터 삼아 분석하고 재구성해 보는 학문이다.

“종교학이 종교를 무시하는 게 아니거든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를 실증하지는 못하지만 신이 있다는 사람이 있고, 없다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며,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문화가 인류의 문화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를 연구하는 것입니다. 종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음에 대해 해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종교를 안다는 건 인간의 문제를 아는 것이고, 인간의 문제를 아는 것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를 아는 것이죠. 즉, 왜 인간은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의미의 실체를 경험해야만 직성이 풀리고 만족하는가 연구하는 것을 종교학이라고 할 수 있죠.”

그는 종교학을 하며 늘 자유로운 물음과 답에 대한 고민을 했다. 물음이 자유롭지 못하면 배움이 자유롭지 못하다. 배운 것만 물어야 한다면 배운 물음은 자신의 물음이 아니다. 배운 물음은 다 해답이 있어서 그것만 쫓아가면

된다. 그렇게 살아도 되지만, 그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다.

#### 한국의 종교문화

그가 보기에 한국의 종교문화는 로고스적인 것보다 파토스적인 게 강하다. 또 보수, 진보 구분 없이 근본주의가 강하다.

“진보 아니면 안 된다, 보수 아니면 안 된다면 다 근본주의죠. 진보적인 종교도 근본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종교도 근본주의적이예요. 진보적이라고 하면 열려 있어야 하지만 닫혀 있어요. 한국 종교는 직접적이고 현실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종교를 바꾸는 데 큰 갈등이 없어요. 엄밀한 의미에서 개종이 없다고 봐야죠. 더 현실적인 뿌리에 있는 것을 말하자면 이른바 실용주의인데, 지금 여기에서 내게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단기준입니다. 아주 좋게 말해서 프래그머티즘이 강한 것이고, 현실의 이해관계에 많이 좌우되는 것이 한국인의 종교적 특성이 아닌가 해요.”

그는 올여름 <한국문학> <세계의 문학>에 실었던 개인적 독서체험에 관한 고전읽기를 한 권의 책으로 낼 계획이다. 또한 ‘키워드 50개로 살펴본 종교학’이라는 책을 내년 3월경에 출간할 계획이기도 하다. **\*\*\***

취재 양선희기자 | 사진 박신우기자